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3. 9. 8.(금)

교육부-보건복지부, 공동 전담팀(T/F) 만들어 교원의 마음건강 치유 강화한다

- 교원의 마음건강 치유 및 회복 지원을 위한 공동 전담팀 운영
- 모든 희망 교원은 마음건강 진단 가능, 맞춤형 정서·심리 지원 및 치료 제공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8일(금), 최근 학교 현장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선택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을 위한 공동전담팀(T/F)’을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지난 5년여간 연평균 20명 정도(초등 12명 내외)의 공립 초·중·고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정도로 학교 현장에서 교원이 느끼는 정신적 고통(우울감과 불안감 등)이 매우 큰 상황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교원들이 집단 우울감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교원 개인의 우울과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담과 지원체제를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을 위한 공동전담팀(T/F)’을 운영하기로 했다.

공동전담팀(T/F)은 올해 2학기부터 희망하는 모든 교원이 마음건강을 진단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교사 대상 특별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이뤄지는 예방적 프로그램과 전문치료 간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신건강 위기상태 고위험군의 교원들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정신건강 복지센터를 통해 심리 지원을 제공하고, 정신건강 전문의 등 민간 심리상담 전문가 연계를 통한 심층 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선생님들은 교육활동의 가장 중요한 주체이므로, 선생님들의 마음 위기는 학교 현장의 정상적 교육활동을 어렵게 한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모든 교원의 마음건강 회복을 목표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선택에 마음이 아프다.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교육부와 함께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선생님들의 마음건강 회복을 돕겠다”라며, “또한, 정부가 준비 중인 정신건강혁신방안에도 교원의 마음건강 지원을 위해 외국 사례 등을 감안하여 추가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 교원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보영 (044-203-6480)
		담당자	교육연구관	김명런 (044-203-6487)
			교육연구사	조수원 (044-203-6488)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관리과	책임자	과 장	김승일 (044-202-3870)
		담당자	사무관	김준범 (044-202-3872)

